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 ◎ 점점 밤은 깊어 가고, 낮은 짧아지는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절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지구가 도는 시간에 맞춰 가지 않으면,
그때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뛰고 시간을 다스려야 됩니다.

- ◎ <시간>을 다스리려면, 시간을 뒤에다 놓고 뛰어야 됩니다.
앞에 놓고 쫓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잡으려면, <시간>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새벽’을 잡고 다스리게 됩니다.

- ◎ 잠언을 전하면서 말씀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1. 항상 <처음 사랑>을 행하여라.
2. <처음 사랑>을 잊으면, ‘사랑에서 탈선된 자’ 다.
3. <주와 떨어진 자들>, 가까이하여라.
4. <주를 가까이하다 떨어진 자들>은 문제가 있다. <주>와 함께 행해야 할 수 있다. 너희 혼자 행하면, ‘육적’으로 흘러간다.

5. <주의 시간>에 맞춰 ‘말씀’ 도 들어라. 그래야 ‘육적인 것’ 에서 벗어난다.
6.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대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것>과, 그 후에 <녹화된 것을 듣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하나님이 그 육신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얼굴’ 과 ‘얼굴’ 을 맞대고 듣는 것과 같다.
7.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다. <하나님>은 ‘주’ 를 쓰고 행하신다. - 이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말씀이다.
8. <사탄>도 ‘사람’ 을 쓰고 행한다. <사탄 스스로 행할 때>도 있으나, 그때는 힘이 없다. 그냥 공격해서는 사람이 ‘사탄, 마귀’ 를 못 보니 모르고, 효과도 없다. 그러나 <사람>을 쓰고 행하면, 그 사람을 통해 말도 하고, 알아듣게도 되니 공격하기가 쉽다. <사람을 쓰고 하는 것>이 ‘사탄의 최첨단의 위력과 권세와 세력’ 이다.
9. <하나님>은 ‘사람’ 을 쓰고 행하신다. 그때 가장 큰 권세와 위력과 세력을 가지고 행하신다.
10. <하나님>은 ‘최고의 권세자’ 요, ‘최고의 권력자’ 이시다.
11.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실 때도 ‘사람’ 을 쓰고 행하신다. <메시아>를 쓰고 행하시고, <선지자>를 쓰고 행하시고, <중심

인물>을 쓰고 행하신다. 고로 이들이 한 말은 거의 ‘하나님이 하신 말’ 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이 겪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얻은 것도 있지만,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이라는 것이다.

12. 예전에는 <주>와 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옆에 있다. 고로 지금이 <함께 행할 수 있는 때>다. 지난 10년 동안은 월명동에 왔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함께 하고 싶어도 못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옆에 있으니, 함께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때는 ‘한 때’ 다.

13. <사탄>도 ‘사람’ 을 쓰고 행하니, 잘 봐야 된다. 영계를 봐야 된다. <이 시대 사람들>은 ‘사탄’ 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사탄 이야기’ 만 하면 사탄이 바로 오는 것을 본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가 사탄을 보겠다고 기도하면, 사탄이 보이기 시작한다. 못 본 사람들은 듣고서 깨달아야 된다.

14. <신약 때>도 ‘사탄의 깊은 것’ 을 깨달으라고 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다. <사탄, 마귀>를 ‘우는 사자’ 로 비유했다. <사자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고, 흔들고,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 이같이 <사탄, 마귀>도 사자와 같다고 비유를 든 것이다.

15. <꿈에 사자를 본 사람>은 ‘사탄’ 을 본 것이다. 사자뿐 아니

라 악한 짐승들이 쫓아다니기도 한다. 이는 ‘자기에게 속한 사탄’도 있고, ‘형제들에게 속한 사탄’도 있다. <악한 짐승>이나 <뱀>은 ‘사탄’을 보인 것이다.

16. <영적인 사람>은 ‘사탄, 마귀’를 본다. 못 보는 것은 그만큼 영에 대해 어둡고, ‘영적인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야 볼 수 있다.

17.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문이 열렸을 때 하늘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백마를 탄 자가 있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했다.

18. <메시아>는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갖고 온다. 그래서 <시대 말씀>도 오직 ‘주’ 하나밖에 모른다. <선생>은 이 말씀을 20년 동안 하나님과 성자께 배웠다. <성자>가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다. 선생이 다른 사람은 안 믿고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절대 믿으니, 성자께서 예수님만 쓰고 나타나셨다. 그때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도 했다. 선생이 묻기를, 진짜 예수님이 맞느냐고, 혹시 마귀가 쓰고 나타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성자가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말을 하지, 참말을 못 한다. 마귀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마귀가 성경을 가르칠 리가 있겠느냐.” 하셨다. 성자께 그 말씀을 다 배우고 나서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없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다.

19. 성경에서 <태양이 멈췄다고 한 말씀>도 다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태양이 멈춘 것으로 알고 믿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의 실체를 모르고, 여호수아 때 태양이 진짜 멈췄다고 했다. <태양>이 가더라도 했으면 믿어 주지, 실제 태양이 갔느냐? 그런데 옛날에 태양이 갔냐고 물어보면 갔다고 한다. 그 태양을 여호수아가 “멈춰라.” 해서 멈췄다는 것이다.<여호수아>가 하나님이나? 하나의 사람이고, 한 시대의 지도자다. 그런데 뭐가 그리 대단하겠느냐. <모세>도 뭐가 그리 대단하겠느냐. <메시아>가 대단하다. <예수님>은 대단하지만,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윗은 대단하지 않다. <예수님>은 ‘사람’이며 ‘신’이었다. 그래서 대단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 육신을 내어 주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대단하다. <메시아>가 최고로 대단하다. 고로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윗은 ‘예수님’ 처럼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지기를 잘 따져야 된다.

20. 옛날에 예수님이 선생에게 늘 말씀하기를 ‘애인’ 이라고 했다. 선생 없으면 못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 시원히 말 좀 해 달라고 했다. 고로 전도하러 나가면, 전초도 안 하고 한 번에 확 찢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고 했다. 우상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원시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사냐고 하며, 그들이 뭐가 대단하냐고 했다. 불경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것 조금 읽는다고 되겠느냐. 기둥 몇

개 가지고는 ‘집’이 안 된다. 집을 지어 놓고 <문>이 없으면 추워서 어떻게 살겠느냐. 혹은 <등불>이 없으면 어두워서 어떻게 살겠느냐. 혹은 <방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잠을 자겠느냐. 혹은 <부엌>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해 먹겠느냐. 혹은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혹은 <지붕>이 없으면 비가 줄줄 새서 어떻게 살겠느냐. 조금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완전하게 100% 다 갖추야 집이 된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다 갖추야 된다. 하나님같이 해야 된다.

21. <세상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씩은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 조금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22.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고 했다. <공자의 말> 하나도 안 들었어도 ‘구원’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 <석가모니의 말> 하나도 안 들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소크라테스 철학>도 ‘메시아 철학’ 앞에 아주 어린아이와 같다. 그와 비할 수 없이 많은 철학을 ‘메시아’가 가지고 있다. <메시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쓰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책>을 읽어 봐도, 머리만 아프다. 선생이 한 해 겨울에 책 3000권을 읽어 봤기에 안다.

◎ 선생에게는 ‘말씀’이 풍부합니다.

그중에서 한 편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23. <마귀>는 ‘사람’을 쓰고 행한다.

24. <하나님>도 ‘사람’을 쓰고 행한다.

25. 어젯밤 꿈에 보니, 큰 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기에 물리면 바로 죽겠다 싶어서 바로 봉 떠서 내 집으로 왔다. 그 집은 <영적인 집>이다. 집에 들어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사자가 집 앞에 와서 앉아 있었다. 내 집이라 안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그 사자에게 물리면 죽게 생겨서 옆으로 살살 갔다. 그 사자는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여자 사자’였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사자를 같이 데리고 내 방까지 왔는데, 문제는 내가 잠이 들면, 사자가 나를 물어 죽일 것 같았다. 이 사자는 월명동 성령폭포 앞에 있는 해태상같이 덩치가 컸다. 하도 커서, 물면 한 입 거리밖에 안 될 것 같았다. 내가 잠을 자면 물어 죽일 것 같았으나, 내가 잠을 안 자고 사자랑 놀아 주면 절대 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내가 잠을 안 자야겠다.” 하고 깨닫고서 사자를 지켜봤다. 사자를 보니, 붉은 사자가 아니고 아주 흰 사자였다. <백사자>였다. 잠을 안 자고 사자를 지켜보다가 꿈에서 깼다. 이 꿈을 해석할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생각났다. 앞서 말씀했듯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함이다. 그리고 또 깨닫기를 ‘내가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다.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사탄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 섭리사를 해하지 못한다. 잠만 자면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

다.’ 했다. 이것을 깨닫고 말씀해 준다.

◎ 받은 말씀이 많은데, 그중 또 하나를 해 주겠습니다.

26.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즉시 실행하신다. 선생이 식사하러 갈 때는 아무도 안 데려간다고 해 놓고서, 결국 모여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됐다.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먹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주에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니, 너도 지켜라. 같이 할 때 해라. 같이 먹을 때 먹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모여 있는 자들에게 “같이 가자.” 하시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하신 것이다.이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즉시 실천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 하나님께서 금주에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같이 할 때 해야 됩니다.

<쓰레기>도 치울 때 같이 치워야 됩니다.

<전체>가 하면, 고생이 안 됩니다.

고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월명동에 오면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기입니다.

<해외 회원들>도 동일합니다.

선생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월명동의 모든 쓰레기>와 <죄 쓰레기를 치우는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 죄 쓰레기>도 자기가 꼭 회개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내일 아침에 전해 주겠습니다.